

주차위반 유발에 관여되는 위반상황 해석양식과 위반자들의 심리적 특성*

최 상 진 김 정 인 박 정 열 손 영 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주차위반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위반자들의 해석양식과 위반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조사대상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23명이었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 주차위반 유발요인 및 위반행위 인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주차위반과 관련된 일반적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나라 운전자들은 주차위반을 하게되는 주요 이유를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운전자의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개인편익과 주차질서를 지키면 자기만 손해라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었고, 아울러 위반에 대한 자기-합리화와 구조적 책임귀인 의식과 같은 자기-정당화도 주차위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주차 위반자들은 운전자 편의위주의 주차관리를 기대하며 아울러 위반사항이나 위반자에 대해서 관용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교통체증, 매연, 주차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유발함으로써 교통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는 대단히

심각하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되며, 사고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는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 본 연구는 2000년도 교육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핵심분야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연간 1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34만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1998),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비용도 10조7천8백억원(중앙일보, 1997, 12. 8)으로 우리 나라 국민 총생산(GNP)의 2.8%에 해당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또한 교통 문제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직·간접적인 인적 및 물적 피해 이외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손실과 매연으로 인한 대기환경악화도 함께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자동차수와 그에 상응하는 주차시설 부족 및 일부 운전자의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수준 미흡으로 주차난과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상이나 주택가 혹은 대형건물 주변의 무질서한 불법주차행위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소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차행위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속도위반과 더불어 운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위반하게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대도시의 불법주차는 도심차량의 15-20%에 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1982년 2,124대에서 1993년 8,714대로 해마다 약 43% 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도 서울의 불법주차 차량은 311만대이며, 불법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액은 9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시, 교통계획담당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서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거의 없다보니 운전자들이 위반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행위 과정에서 주차위반을 일삼는 이유는 첫째 주차위반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둘째 주차위반은 주차상황에 따라 위반여부가 불확실하여 해석의 문제가 관여되며, 셋째 우리 실정에서 주차위반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넷째, 주차위반의 상황적 허용에 따른 습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운전자들은 주

차위반 사실에 대해서 둔감해지거나 심지어 무감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주차위반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심각성이 여타의 위반행위에 비해서 미약할 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행위는 습관화를 통해서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부추기고 교통사고의 최대의 주범인 안전운전 불이행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차법규 준수가 운전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이행에 기여가 된다고 판단되어, 주차위반 행위에 관여되는 상황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해석양식과 심리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배경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의하면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물로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내 자동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여 공중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주차에 대해서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면 필연적으로 빈차선이나 노상불법주차 등을 하게되므로 또다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교통혼잡을 이루는 요인이 된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상황과 구조적인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일부 운전자들의 양식없는 불법주차행위는 도심지의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불편 및 차량사고유발, 소방차나 앰블런스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에 지장을 주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주차실태조사 및 중·단기주차정책방

향연구”(1993)를 수행하면서 불법주차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불법주차를 하게된 사유를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자중 39.9%가 “목적지 주변에 주차할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고, 21.8%가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서”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주된 요인이 주차장 안내 체계의 미흡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반자들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차시설부족 및 안내체계미흡이라는 구조적 측면에 그 원인을 돌린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반에 관여되는 요인은 오히려 구조적 문제 자체보다도 주차와 관련된 환경 및 상황적 특성에 대한 운전자의 지각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예, 개인 편익)이 위반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1. 주차환경 및 상황적 특성

1) 부족한 주차공간

일차적으로 주차위반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주차시설의 부족이다. 이러한 주차공간의 부족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자동차와 이에 따른 주차수요를 주차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1970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만대이고 이중 승용차수가 18,000대로 전체 자동차 구성비중 30%를 밀들었으나 1994년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93만2천대로 70년에 비해 32배 증가하였고, 승용차대수도 149만대로 전체 자동차 구성비중 77.5%에 이르고 있다(서울특별시, 1994).

이러한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4년 12월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차량과 주차시설을 비교한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차량 등록대수가 193만 2천대이나 주차장은 102만면에 불과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52.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주차수요를 보면 주간주차수요는 38만대(도심 7만9천대, 외곽 30만1천대)이고 야간주차수요는 154만6천대인데 비해 확보된 주차시설은 주간이 27만 4천대로 72%의

확보율을 그리고 야간이 130만 8천대로 84%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주차공급의 부족원인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한 시설공급의 절대적 부족에 주된 원인이 있지만 장시간주차(평균 160분, 노상은 69분), 낮은 회전율(평균 3.9회), 목적지에 근접주차 선호(목적지까지의 평균거리 109m) 등은 주차시설의 활용도를 낮게 하여 주차요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불명확한 주차구획선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구역이 주차가 가능하고 어떤 구역이 금지구역 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주차공간과 주차구획선이 명확하게 되어있고, 주차를 해도 되는 장소와 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예외 없이 단속이 이루어지고 스티커가 발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위반시 반드시 단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보면, 주택가나 도로의 여건상 주차를 해도 되는 구역과 해서는 안되는 구역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통법규상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한번 더 주차 금지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역에 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전 당사자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주차금지구역이나 주차가능구역도 많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은 매번 주차와 관련해서 주차를 해도 되는지 혹은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3) 편의위주 주차관리

불법주차를 부추기는 또다른 상황은 주말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원 주차장이나 대규모 인원이 일시에 동원되는 행사장 같은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차관리와 단속을 통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야하는

주차관리요원들이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융통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운전자 편의위주의 주차위반 행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상황의 융통성 및 운전자 편의위주의 주차관리에 대한 기대가 주차와 관련된 규정 및 법규 준수라는 원칙을 압도하게 되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를 부추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형 음식점이나 할인매장,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건물에서의 주차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들 건물들이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없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일삼아 교통소통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주차를 일삼는 이들 운전자들은 업소주인이나 대형건물 관리자들과 단속원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 교감 혹은 사전양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건물에서 고용한 주차관리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한다. 건물주의 입장에서 특히 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야하는 대형건물의 경우, 고객 편의 차원에서 불법주차를 묵인하고 강력한 단속을 건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운전자들의 주차위반을 부추기기도 한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의 경우를 보면, 주차단속이 개인의 생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원과 주인간의 합의가 있거나 인정에 호소한 배려요구로 인해서 주차단속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인이 식당 앞 불법주차를 묵인하고 아울러 주차 단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서 주차단속을 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음식점과 같은 접객업소 주변의 불법주차 행위가 조장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4) 무원칙한 단속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주차 단속원들이 편의성 논리에 의해 불법주차를 묵인하다가 언론이나 보행자 혹은 운전자들의 항의가 있을 시에는 원칙에 입각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무원칙한 단속행위 때문에 운전자들은

예측가능한 주차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편의성에 입각해서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차 단속원들은 단속과정에서 위반을 하면 예외 없이 스티커를 발부하여 운전자들로 하여금 주차위반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 없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위반 단속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어떤 때는 예외 없이 단속을 피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눈감아 주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각종 선거 때마다 혹은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법규위반 운전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하도록 국민을 계도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운전자들의 법규위반을 조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속의 무원칙성은 운전자들의 나쁜 행동 혹은 탈법적 행동이 습관화 되도록 유도하는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단속형태 혹은 원칙에 입각하지 아니한 상황논리(편의성)에 의한 단속은 일반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위반자들로 하여금 위반 사실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재수나 운으로 합리화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결국 운전자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단속에 저항을 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을 불법으로 보지 않으려는 의식을 키워나가게 된다.

한편 주차 위반 시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 가운데 하나가 견인이다. 한번쯤 견인을 당한 적이 있는 운전자들은 위반시의 편의성과 위반의 대가를 비교하였을 때, 불법주차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차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주위에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을 당한 사람들은 견인 시 납득할 수 없는 견인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견인되던 장소에서 목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주로 소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단속의 불형평성은 운전자들로 하

여금 단속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단속에 저항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운전자 심리특성

1) 개인편익과 피해의식

우리 나라 운전자들은 운전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주는 행위로 보기에 앞서 이것을 타인과의 경쟁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운전자는 운전행위 과정에서의 규칙준수, 즉 법규정 준수보다는 운전행위가 가져다주는 최종적 결과인 개인편익(단기적 이익)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목적지 근처에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어도 조금 멀리 있다 싶으면, 가까운 거리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서 언급된 불법주차율 하는 이유에 대한 서울시의 결과 응답자중 28.1%(불법주차 이유 가운데 2위)가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서”라고 대답하였다는 사실에도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운전자들의 개인적 이익 추구경향성과 함께 주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운전자들의 기본의식 중의 하나는 “불합리한 법규가 많아서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것이다. 법과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거나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먼저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앞서가는 상황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시간적, 육체적 및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 혼자만 그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나만 지키면 손해라는 피해 불수용 의식이 불법주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위반에 대한 자기-정당화

운전과정에서 운전자들은 주차 위반 시 단속에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대비책 즉 명계거리를 갖거나 주차단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를 찾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전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석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노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금 있지도 않은 노약자를 위해서 미리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노인들이 오면 좌석을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합리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인데, 문제는 그의 좌석점유로 인해서 노약자들이 앉을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운전상황에서 혹은 주차를 할 경우 나름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일부 운전자들은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주관적 판단하에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도로여건과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호등의 경우에도 이 같은 자기-중심적 합리화(혹은 이기적 자기 합리화)가 나타나는데, 주차의 경우는 그 도가 더욱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차는 우리의 경우 주차구획선이 명확치 않은 곳이 많으며, 법규상으로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서 운전자들은 이 같은 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주차구획선이 명확한 곳에서도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행자에게 불편만 주지 않는다면”이라는 자기-중심적 합리화를 통해 주차위반행위를 일삼는다.

또한 주차위반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은 자신이 남들보다 항상 법규를 잘 준수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위반하니깐 나도 어쩔 수 없이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위반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요구할 경우, “급한 용무에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찾지 못해서”와 같은 상황이나 환경적 논리를 펴서 자신의 위반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운전자들이 자신의 위반에 대한

정당성 피력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차시설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다.

3) 적발확률에 대한 낙관적 기대

운전자들은 주차 단속에 대해서 단속될 객관적 확률에 입각해서 행위를 하기보다는 주관적 적발확률을 점치는 경향이 있다. 단속이 강화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적발된 경험이 별로 없었고, 행위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주차 위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운전자들은 주차와 관련한 위반을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막상 단속을 당했을 때, 자신의 법규위반 사실을 시인하기보다는 재수로 합리화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주차 위반자들은 설마 누가 주차위반 딱지를 떼라 혹은 나만은 단속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차를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할지와 같이 애매 모호한 상황이 단속되지 않으리라는 과잉 낙관 및 모험감수 등과 맞물려 주차위반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4) 위반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주차위반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은 자신의 위반행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우선 분노감과 억울함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만 단속된 거야” 혹은 “아니 잠시 주차한 것 가지고 굳이 단속하는 이유는 뭐야” 등의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분노감과 억울함의 반응은 위반자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나 운으로 합리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반응이 유도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유발요인들, 즉 주차환경 및 상황적 특성에 의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및 상황적 특성에 본다면, 운전자가 주차를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모호한 상황에서 그리고 주차단속이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위반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함께 작용했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타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각

운전자들은 타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과 같은 교통법규를 어길 경우에는 심적 부담을 주거나 적극적으로 응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해야한다. 그러나 본인들 스스로도 운전 중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규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위반을 하다보니 타인의 법규위반 사실에 대해서 관용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또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타운전자들의 너무나 많은 법규위반 사례를 접하다 보니 사례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둔감해지려고 노력하는 경향성마저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 운전자들은 주차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법규위반 문제가 나 혼자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점점 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다.

Rothengatter(1988, 1991)는 운전규준에 관한 신념이 도로이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운전법규위반은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결과(예, 스티커 발부, 교통사고 등)뿐만 아니라 타 운전자의 행위에 대한 동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Parker 등(1990)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려는 의도는 안전운전에 관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가령 가족구성원이나 친한 친구가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신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운전자의 행동은 타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관한 그의 신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주위사람들(가족, 친구, 타인 등)의 법규위반 사례를 수없이 목격할 경우 위반사실에 대해서 둔감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심지어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Parker(1992)의 연구에 의하면 운전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한 운전자들은 잠재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부정적 결과(운행 혹은 교통소통의 장애)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위반 사실에 대한 사회적 거부(비난)를 덜 지각하며, 그러

한 행동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들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들 보다 법규를 위반하는 도로이용자가 더 많다고 추정하면서 잘못된 합의 편파의 증거를 보여 주었다(Manstead 등, 1992). 즉, 주차위반을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은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에 비해 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연구배경에 입각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차위반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운전자들이 위반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조사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서울, 경기 지역 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23명이었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자가 98명 여자가 25명이었으며, 결혼유무에서는 기혼자가 55명 미혼자가 68명이었고,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이 18명, 대졸이 84명, 고졸이 15명, 중졸이 3명 초등학교졸이 1명이었다. 한편 연령은 최하 21세 부터 최고 59세로 평균 연령은 34.16세였고, 운전 경력은 최하 4개월에서 35년까지로 평균 6.55년이었으며, 주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경험은 유경험자가 28명 무경험자가 95명이었다.

조사기간 및 실시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에 앞서 조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들에게 설문지 작성요령과 응답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키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특히 설문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과 지문에 유의하도록 주지시켰다.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차위반 유발요인 탐색과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이 운전활동 중에 주차행위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연구자들이 토론을 거친 결과, 일상적으로 주차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주차법규를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장소 6군데, 즉 아파트 단지 내, 종합병원 앞, 대형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 대형백화점 앞 도로, 전자상가 도로변, 대형음식점 앞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슬라이드 방식대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지문과 함께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차위반 유발요인 탐색을 위해서 사진상의 주차 금지구역인 →표한 장소에 주차를 하겠느냐고 질문을 한 다음 “예”, “아니오”로 응답한 각각의 경우에 그 이유를 쓰라고 요구하였다. 이어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태도 및 감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7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였다(부록 참조).

2) 주차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주차위반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유발요인과 주차 문제에 대한 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10명의 자가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 심층면접결과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일차적으로 문항형식으로 전환한 다음, 연구배경을 근거로 연구자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총 31개 문항을 구성하였다(문항 내용은 부록 참조).

자료처리 방법

주차유발요인의 경우 각 항에 대한 질문이 “예”, “아니오”의 응답을 먼저 요구하고 이후에 그와 같은 응답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분율과 빈도 분석을 하였다. 이어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태도 및 감정에 대한 질문 내용도 응답 방식을 고려하여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을 하였다.

주차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을 주차위반자와 법규준수자로 구분하여 이들간의 태도상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구분은 주차유발요인과 관련된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하면 1점을 “아니오”라고 0점을 주어 이들의 점수분포를 산출해서 상위 30%에 해당하면 “주차위반자”로 하위 30%에 해당하면 “법규준수자”로 하였다.

결 과

1. 주차위반 유발요인 및 위반행위 인식과 관련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이 운전활동 중에 일상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한편으로 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은 6군데 장소에서의 위반 유발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주차유발요인에 대한 결과

1-1.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법주차와 관련된 모의적 상황에 대하여 응답자 123명중 주차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0명(48.8%), 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2명(50.4%) 무응답이 1명이었다. 주차이유와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응답중 일부는 중복응답을 하였다.

1-2 종합병원 앞

종합병원 앞에서의 불법주차와 관련된 모의상황에 대하여 응답자 123명중 주차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32명(26.8%), 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91명(74%)이었다. 주차이유와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응답 중 일부는 중복응답을 하였다.

표 1. 주차를 하는 이유(아파트 단지내)

응답내용	빈도(명)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19
편하거나 귀찮아서	14
빈 공간이므로	6
남들도 하니까	5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5
단속 가능성이 없어서	5
내가 거주하는 곳이므로	5
기타	5

표 2.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아파트 단지내)

응답내용	빈도(명)
주차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18
차량훼손에 대한 염려	16
차량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므로	13
지하 주차장에 주차	4
기타	11

표 3. 주차를 하는 이유(종합병원 앞)

응답내용	빈도(명)
주차비가 아까워서	17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14
남들도 하니까	5
기타	4

표 4.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종합병원 앞)

응답내용	빈도(명)
단속의 위협	29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	19
주차질서를 지키기 위해	15
병원 유료주차장 이용	13
차량훼손으로 인한 불안	8
기타	7

1-3 대형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

대형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관련된 모의 상황에 대하여 응답자 123명중 주차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1명(8.98%), 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10명(89.44%), 그리고 무응답이 2명이었다. 주차이유와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응답중 일부는 중복응답을 하였다.

표 5. 주차를 하는 이유(대형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

응답내용	빈도(명)
용통성을 발휘	4
빈 공간이므로	3
기타	5
장애인 주차구역이 진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표 6.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대형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

응답내용	빈도(명)
장애인 주차구역이므로	86
양심의 가책 때문에	9
주위의 시선 때문에	7
단속의 위협	4
기타	6

1-4 대형백화점 앞 도로

대형백화점 앞 도로에서 불법주차와 관련된 모의 상황에 대하여 응답자 123명중 주차를 하겠다고 응답

표 7. 주차를 하는 이유(대형백화점 앞 도로)

응답내용	빈도(명)
편하거나 귀찮아서	5
남들도 하니까	3
기타	5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좀처럼 단속하지 않으므로	

표 8.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대형백화점 앞 도로)

응답내용	빈도(명)
단속의 위협	51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25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13
지하 주차장 이용	12
기타	10

한 사람은 12명(9.8%), 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10명(89.4%), 그리고 무응답이 1명이었다. 주차이유와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응답 중 일부는 중복응답을 하였다.

1-5 전자상가 도로변

전자상가 도로변의 불법주차와 관련된 모의 상황에 대하여 응답자 123명중 주차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0명(65%), 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

표 9. 주차를 하는 이유(전자상가 도로변)

응답내용	빈도(명)
잠깐이면 일을 마칠 수 있으므로	56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8
편하니까	4
남들도 하니까	4
주차비가 아까워서	3
기타	6

표 10.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전자상가 도로변)

응답내용	빈도(명)
단속의 위협	10
질서를 지키기 위해	8
불안해서	5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므로	4
기타	15

답은 42명(34.1%) 무응답이 1명이었다. 주차이유와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응답중 일부는 중복응답을 하였다.

1-6 대형 음식점 앞

대형음식점 앞 도로변의 불법주차와 관련된 모의 상황에 대하여 응답자 123명중 주차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2명(50.4%), 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0명(48.8%) 무응답이 1명이었다. 주차이유와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응답중 일부는 중복응답을 하였다.

표 11. 주차를 하는 이유(대형 음식점 앞)

응답 내용	빈도(명)
식당 측에서 주차문제를 책임지므로	23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서	11
잠깐이면 식사를 마칠 수 있으므로	5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4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4
남들도 하니까	4
기타	11

표 12.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대형 음식점 앞)

응답 내용	빈도(명)
다른 음식점으로 간다	31
단속의 위험	10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므로	9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6
기타	6

2) 위반행위 인식과 관련된 결과

2-1 우리 나라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하는 주된 이유

우리 나라 운전자들이 주차위반을 하는 이유 6가지를 제시하여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3가지만 선정하라고 요구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6가지 이유:

- ① 조금이라도 덜 걸기 위해서
- ②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어서
- ③ 급한 용무 때문에
- ④ 남들도 다 주차하기 때문에
- 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차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 ⑥ 위반을 해도 적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표 13. 주차위반의 주된 3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②	57 46.3	④	34 27.6	④	40 32.5
③	19 15.4	③	30 24.4	①	25 20.3
④	18 14.6	②	27 22.0	③	23 18.7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조사대상 운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차 위반의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주차시설 부족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불법상황에 대한 동조성으로 남들도 다 주차하기 때문에 자신도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급한 용무 때문으로 들리고 있었다. 네 번째는 개인적 편익에 입각해서 조금이라도 덜 걸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우리 나라 운전자들이 주차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동기

주차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동기에 대한 123명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주차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동기)

응답 내용	빈도(명)
벌금/견인/차량훼손이 걱정되서	51
준법정신/질서의식	34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12
도덕성	8
무응답 및 기타	18

이상의 결과를 보면 운전자들이 주차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동기는 준법정신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측면보다는 물질적 피해와 손해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2-3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시의 책임귀인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스티커를 발부 받았을 때 전체 응답자 123명중 2명의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62명(50.4%)이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반면에 59명(48%)은 불법주차를 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2-4 본인 및 타인이 주차법규 준수수준

본인과 타인의 주차법규 준수수준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본인의 준수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지킨다가 16명(13%), 가끔씩 지키려고 한다가 87명(70.7%), 가끔 위반한다가 18명(14.6%), 자주 위반한다가 1명(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타인의 주차법규 준수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지킨다는 한 명도 없었으며, 가끔씩 지키려고 한다가 35명(28.57%), 가끔 위반한다가 53명(43.1%), 자주 위반한다가 34명(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운전자들은 자신의 법 준수 수준은 과대 평가하는 반면에 타인의 준수 수준은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5. 주차위반 차량을 볼 때의 느낌

응답내용	빈도(명)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	24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다	22
이해한다	20
불편만 안주면 상관없다	18
별생각 없다	16
안타깝다	12
기타 및 무응답	11

2-5 주차위반 차량을 볼 때의 느낌

“주차위반 차량을 볼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듭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들의 반응은 표 15와 같았다.

이 같은 결과는 타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들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편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분노가 앞서고 다른 한편에서는 위반자들의 행위를 이해하려 하거나 무감각해지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6 주차위반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주차위반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속/스티커 발부/견인(98명), ② 교통방해(12명), ③ 차량손상(8명), ④ 타인의 시선(3명), ⑤ 무응답(2명).

주차위반을 하는 운전자들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타인들이 받게 될 불편함에 대한 미안함 내지는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물질적 피해를 걱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7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스티커 발부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적어달라고 요구한 결과 ① 재수 없다고 느낀 사람이 23명, ②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18명, ③ 화가 났다고 느낀 사람이 17명, ④ 후회한 사람이 15명, ⑤ 자책한 사람이 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 없고 억울한 감정이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차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주차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서는 문항 전체에 대해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끼리 묶어서 4가지로 분류하여 일상적인 주차 환경에서 주차위반을 많이 하는 집단(주차위반자)과 적게 하는 집단(규정준

수자)으로 나누어 이들의 태도상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차문제에 대한 4가지 태도차원 즉, 개인편익과 피해의식, 자기-정당

화, 편의위주 주차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지각에서 주차위반자들과 준수자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을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6. 주차문제에 대한 4가지 태도차원의 차이비교

태도차원	집단	평균	t	자유도	유의도
개인편익과 피해의식	위반자	2.402	6.845	85	.000
	준수자	1.821			
자기-정당화	위반자	2.983	5.090	84	.000
	준수자	2.542			
편의위주 주차관리	위반자	2.677	5.093	83	.000
	준수자	2.082			
위반지각	위반자	2.480	-2.900	85	.005
	준수자	2.672			

표 17. 주차문제에 대한 4가지 태도차원 상에 있어서의 주차위반자와 준수자들간의 평균차

문항	내	용	전체평균	t	평균차
개인편익과 피해의식					
5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손님이 많을 경우 쇼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주차해도 무방하고 본다	쇼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주차해도 무방하고 본다	1.63	2.004**	.52
7	바쁜 와중에 혼자만 주정차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한다	바쁜 와중에 혼자만 주정차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한다	2.29	4.389**	.67
11	많은 사람들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규정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규정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2.09	3.806**	.55
13	비록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 해도 집 앞 공터를 두고서 멀리 주차구역에다 차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비록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 해도 집 앞 공터를 두고서 멀리 주차구역에다 차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2.42	4.393**	.69
14	남들이 주차위반을 다반사로 하는 장소에서 나 혼자 주차규정을 지키는 것은 바보짓이다.	남들이 주차위반을 다반사로 하는 장소에서 나 혼자 주차규정을 지키는 것은 바보짓이다.	2.26	5.317**	.71
17	도로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서 먼 곳에 있는 주차장에다 차를 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도로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서 먼 곳에 있는 주차장에다 차를 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2.11	2.695**	.36

위반에 대한 자기-정당화

1	주차구획선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주차를 할 수도 있다.	2.95	2.915**	.40
2	주퐁가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적당한 곳에 주차할 수 있다.	3.14	3.155**	.40
3	이면도로에서 주차금지 표지가 없으면 주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59	n.s.	.25
6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괜찮다.	2.49	4.448**	.74
10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혼잡할 때 비워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1.80	4.749**	.74
15	남에게 혹은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를 해도 무방하다.	2.59	3.969**	.57
16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07	n.s.	.13
19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주차위반을 해도 상관 없다.	2.41	2.730**	.41
21	우리 나라 도시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2.89	4.641**	.63

운전자 편의 위주의 주차관리

4	공원이나 행사장에 방문자가 많을 경우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위반은 눈감아 주어야 한다.	2.12	5.095**	.85
8	대형음식점 앞은 주차 구역이 아니어도 음식점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괜찮다.	2.63	3.682**	.55
22	도심 주차요금이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강력한 주차위반 단속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2.50	3.119**	.51
23	공원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주차장이 만원이라면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주차단속은 완화되어야 한다.	2.39	3.445**	.55
25	차량이 많이 몰려 주차장이 만원이라면 도로변 주차는 단속반원도 눈감아 주어야 한다.	2.26	3.325**	.49
26	지금 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위반은 불가피하므로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	2.37	3.125**	.48

주차 위반 및 위반자에 대한 지각

9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2.48	n.s.	-.29
12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정차 규정을 지켜야 한다.	2.42	-2.416*	-.39
18	사람들이 주차규정을 지키는 것은 준법정신보다는 벌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00	n.s.	.25
20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 금지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2.68	n.s.	.06
24	주차공간 부족과 정책부재 때문에 위반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2.56	2.557**	.42
27	불법주차 문제는 범칙금 인상이나 단속강화보다는 운전자의 의식에 맡겨야 한다.	2.50	n.s.	.23
28	주차위반자를 보면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85	-3.261**	-.54
29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칙금 인상과 강력한 단속을 펴는 길밖에 없다.	2.29	-2.545*	-.44
30	누가 불법주차를 하려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2.46	-3.175**	-.45
31	주차 위반자를 보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21	-3.466**	-.51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평균은 위반에 대한 자기-정당화와 주차위반 및 위반자에 대한 지각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개인편의와 피해의식은 대체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차이에 입각해서는 개인편의와 피해의식에서 7, 13, 14번 문항이 특히 심한 평균차를 보이고 있으며, 위반에 대한 자기-정당화에서는 6, 10, 21번 문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3, 16번 문항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정당화에서 차이가 없는 문항과 이에 상응하여 유사하게 표현됐으면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비교해보면, 위반자들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서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규정준수보다는 위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운전자 편의 위주의 주차관리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특히 4번 문항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주차위반 및 위반자에 대한 지각에서는 9, 18, 20, 27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주차위반 유발에 관여되는 위반상황 해석양식과 위반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입각해서 논의 및 결론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차위반 유발요인 탐색

먼저 연구문제에 입각해서 주차위반 유발요인 및 위반행위 인식과 관련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상시 주차를 많이 하고 위반의 소지가 높은 장소 6곳 가운데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했을 때 이중 전자상가, 음식점, 아파트 등이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의 약 50 %이상)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소에서 불법주차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자상가의 경우 “잠깐이면 일을 마칠 수 있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음식점의 경우 “식당 측에

서 주차문제를 책임지므로”, 아파트의 경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귀찮고 편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종합병원은 “주차비가 아깝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백화점은 “귀찮고 편해서, 남들도 하나까”, 장애인 주차구역에서는 “용통성을 발휘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속과 차량훼손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질서준수와 타인에 대한 불편을 생각해서 라는 응답의 순 이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나타난 이상의 결과만 본다면, 일단 우리 나라 운전자들이 주차위반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상황에 따라 약간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잠깐이면 일을 마칠 수 있다는 위반에 대한 자기-중심적 정당화, 주차문제를 책임져야 할 건물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운전자 편의위주의 주차관리에 대한 기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상황에 대한 자기-중심적 판단에 의한 합리화, 귀찮고 편해서라는 개인편의 우선주의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수의 의견이지만 우리 나라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항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아파트 주차의 경우 내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주차한다는 응답이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차고지라는 개념에 가깝긴 하지만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아파트 공간마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차시 남을 배려하고 보행이나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 대한 배려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 용통성을 발휘하려는 사고방식이 위반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결국 주차위반을 하는 운전자들의 공통된 심리적 속성은 주차상황에 대한 해석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위반을 하려 든다는 것이다. 특히, 단속위험이 적거나 단속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만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위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주차위반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단속 때문이라는 결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다.

2. 위반행위 인식

우리 나라 운전자들이 주차위반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반에 관여될 수 있는 요인들을 6가지로 줄여서 제시한 결과 앞서 개방형 질문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주차시설 부족을 주차위반의 주된 요인으로 보았고, 이어서 남들도 하나씩, 급한 용무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걷기 위하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들의 위반을 부추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차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위반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정부나 사회에 돌리려는 동기(구조적 문제에다 책임을 전가하려는)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들도 하나씩 나도 위반을 한다'라는 응답자들의 심리에는 여러 사람이 하면 죄가 아니다(무죄)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으며,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게끔 할 수도 있다.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로 급한 용무와 조금이라도 덜 걷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나왔는데, 이것은 운전자들이 위반에 대한 자기-정당화 및 개인 편의 우선주의에 의해서 주차위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벌금/견인/차량훼손 걱정(41.4%), 준법정신/질서의식(27.6%),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9.7%), 도덕성(6.5%)의 순으로 나타났다는데 결국 우리 나라 운전자들은 위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법질서를 준수하거나 타인을 배려하려는 도덕적 측면보다는 처벌 및 물질적 손해를 피하려는 경향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위반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단속/스티커 발부/견인(79.6%), 교통방해(9.7%), 차량손상(6.5%), 타인의 시선(2.4%)의 순으로

걱정이 된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주차위반을 줄이는데는 강력한 법적제재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주차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스티커 발부의 책임소재를 물어본 결과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4%, 불법주차를 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8%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규위반 자체에 대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과반수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적발에 대해 부당하다는 법 감정이 만연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식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것은 행정당국의 일관성 없는 단속과 간헐적 단속이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강화(특히 적발이 되지 않을 때)시키고 위반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는 태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본인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았을 때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확인해 본 결과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들은 위반에 대한 책임 인식(28.4%)보다는 재수 없고 억울한 감정(71.6%)이 앞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위반자들이 자신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법 절차나 집행에 대하여 저항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제재와 아울러 운전 이해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법 집행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어서 본인과 타인의 주차법규 준수수준을 물어본 결과 자신은 "매우 잘 지킨다"(13%)와 "가급적 지키려고 한다"(70.7%)가 83.7%인데 비해, 타인에 대해서는 "매우 잘 지킨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가끔 위반한다"(43.1%), "자주 위반한다"(27.6%)가 7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주차위반과 관련된 문제를 운전자들이 본인의 책임보다는 타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운전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차질서를 준수하려는 상황에서 많은 타인의 위반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법규준수 수준에 대한 이 같은 상이한 지각 차

는 결국 법규 준수자에게는 피해의식을 위반자들에게는 주차위반에 대한 양심 가책의 둔화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하느냐”라는 식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3. 주차문제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주차문제 전반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질문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주차 위반자들과 주차 법규 준수자들 간에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 네 가지 측면은 개인편익과 피해의식, 자기-정당화, 편의 위주의 주차관리, 그리고 주차 위반 및 위반자에 대한 지각 등이었다.

위반자와 준수자간에는 우선 개인 편익과 피해의식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차 위반자들은 자기편익 혹은 이기적 불법주차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으며, 또한 남들도 관례적으로 다하는 주차 위반 상황에서 ‘나 혼자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나”만 피해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차위반은 일차적으로 본인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과 “나”만 피해를 볼 수 없다는 피해 불수용 의식이 동기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차 위반자들은 준수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위반 사실에 대한 자기-정당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주차위반과 관련해서 위반에 대한 자기-중심적 합리화를 통해서 그리고 주차위반의 원인을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에 책임을 돌림으로서 위반상황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주차위반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기제는 운전자 편의위주의 주차관리기대 및 위반사항이나 위반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위반자들이 이 차원 상에서 점수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의 이익 혹은 질서준수라는 차원보다는 운전자 편의를 생각한 주차 행정 및 단속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기대는 주차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위반상황에 대한 자기-정당성을 부여하여 정상적인 법집행(주차단속)을 경시하려는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차위반자들은 타 운전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의식상에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주차 시설부족과 같은 상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관용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위반자들이 심정적으로 타위반자의 행위에 대해서 내심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주차위반에 수반되는 양심의 가책 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둔감해지도록 하고 위반을 당연시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입각해서 본다면 우리 나라 운전자들은 주차위반행위가 일차적으로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운전자들의 심리적 특성, 즉 개인편익 및 피해의식 그리고 자기-정당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운전자들이 범하고 있는 주차위반 행위는 주차질서를 지키고자 할 때 느끼는 피해의식, 즉 피해 불수용 의식과 함께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 편익의식이 운전자의 심리기저에 깔려 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저에다 운전자들은 위반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 남에게 불편만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위반에 대한 자기-중심적 합리화를 통해서 그리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책임귀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운전자 개인의 심리적 기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운전자 편의위주의 주차관리를 기대하게 하며 아울러 타위반자나 타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관용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운전자들은 주차 문제를 공공의 이익 혹은 질서준수라는 차원보다는 운전자 편의차원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결국 이러한 기대는 주차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위반상황에 대한 자기-정당성을 부여하여 정상적인 법집행(주차단속)을 경시하려는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타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

용적 태도는 주차위반에 수반되는 양심의 가책 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둔감해지도록 한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주차질서를 지키려는 다수의 운전자들로 하여금 피해의식과 자기-정당화를 촉발시켜 주차위반 유혹에 쉽게 빠져들도록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편익과 피해의식이라는 위반동기와 위반행위에 대한 자기-정당화가 운전자들의 주차위반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어서 편의위주의 주차관리에 대한 기대가 만연되면서 상황논리가 엄격한 법 집행을 압도함으로써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타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조를 부추겨 운전자들이 양심의 가책없이 위반을 당연시하도록 유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차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주차위반을 유발하는 요인 및 위반에 대한 단서 혹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현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시설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는 준법의식의 확립이다. 주차질서준수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나홀로 피해의식은 결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법집행의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주차단속과정에서도 집행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이다. 제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운전자들이 주차위반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와 위반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처벌과 위반자들이 양심적 부담 혹은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주차문화의 확립

이다. 결국 주차라는 것이 운전자 및 모든 사람들이 함께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개념 확립 및 방법론에 관한 문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피험자 수의 문제인데, 개별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했던 관계로 기술적 통계(빈도분석)에 필요한 많은 수의 피험자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유발요인과 관련된 조사에서 위반장소의 생동감 있는 장면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입체적인 장면이 아닌 평면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하다 보니 주차해 있는 차들이 주차상황인지 혹은 진행상황인지 불명확하여 응답자들이 사진 장면을 해석하는데 일부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주차위반 장면에서 다양한 주차위반 유발요인이 포함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태도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제한점인데, 기존에 주차와 관련된 태도 및 실증연구가 거의 없었던 관계로 연구자들이 면접과 토론과정을 통해서 질문지를 구성하고, 주차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위반자들과 규정준수자들간의 심리적 차이를 확인하고 규명하는데 치중하다 보니 태도차원으로 제시한 4가지 유형이 통계적 근거에 의해서 보다는 다분히 연구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나누어 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고, 명확한 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경찰청(1998). 교통사고 통계.
 서울특별시(1993). 주차실태조사 및 중·단기 주차정
 책방향연구.

- 서울특별시(1994). 교통통계.
중앙일보. 1997. 12. 8
- Codol, J. P.(1975). On the so-called 'superior conformity' of the self behavior: Twenty experimental investig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4), 457-501.
- Delhomme, P.(1990). Comparing one's driving with others: Assessment of abilities and frequency of offences. Evidence for a superior conformity of self-bia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23(6), 493-508.
- Goethals, G. R.(1986). Fabricating and ignoring social reality: Self-serving estimates of consensus. In J. M. Olson; C. P. Herman; M. P. Zanna, eds. *Social Comparison and Relative Deprivation: The Ontario Symposium*, (Vol. 4). Hillsdale, NJ: Erlbaum.
- Heady, B. & Wearing, A.(1988). The sense of relative superiority - Central to well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5), 497-516.
- Manstead, A. S., Parker, D., Stradling, S. G., Reason, J. T., & Baxter, J. S.(1992). Perceived consensus in estimates of driving errors and viola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509-530.
- Parker, D., Manstead, A. S., Stradling, S. G., & Reason, J. T.(1992). Determinants of intention to commit driving viola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24, 117-134.
- Parker, D., Reason, J. T. Manstead, A. S., & Stradling, S. G.(1995). Driving errors, driving violations and accident involvement. *Ergonomics*, 38, 1036-1048.
- Rothengatter, T.(1988). Risk and the absence of pleasure: a motivational approach to modeling road user behaviors. *Ergonomics*, 31, 599-607.
- Rothengatter, T.(1991). Normative behavior is unattractive if it is abnormal: relationships between norms, attitudes and traffics law. In *Enforcement and Rewarding Strategies and Effect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Road Safety Symposium*, Eds. Koornsra and Christensen, Copenhagen.

1차 원고 접수 : 2001년 1월 10일
최종 원고 접수 : 2001년 3월 13일

The Attribution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king Violators

Sang-Chin Choi Jeong-In Kim Cheong-Yeul Park Young-Mi Sh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ttribution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drivers' who have violated in parking situation. A total of 123 adult drivers from Seoul and Ky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resent authors developed an open-ended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al factors, the behavioral and cognitive attitudes toward parking violations. The results reveal the following rationale for incurring parking violations. First, the problem of parking structure is found to be the basic assumption for incurring parking violations. For example, the limited parking space allows the drivers to violate in parking situations. Second, the violato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described in terms of self-centered and self-justification. More specifically, self-centered is described as those drivers' who have the tendency to act and behave in favor of themselves. In addition, the respondents have justified their violated behaviors since the outcome is disadvantageous for the drivers. Furthermore, the violators' are found to possess a permissive attitude toward parking violators'.

부 록

주차질서에 대한 태도조사 설문지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운전자들께서 평소 운전하시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차상황에 대해 운전자들이 경험하시거나 느끼시는 바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운전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평소 주차행동과 주차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신 바를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 조사로서 응답자 여러분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처리된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BK21 사업단
전화: 02) 820-6353

* 그림 옆 지문을 읽어보시고 질문사항에 대해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I. 아파트 단지내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동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다. 외출을 하였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지상 주차장은 빈곳이 없고 지하 주차장은 조금 멀다.

→ 표를 한 빈 공간에 주차를 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II. 종합병원 앞



우측에 보이는 종합병원에 친구가 입원을 하고 있다. 친구를 병문안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데 병원주차장은 유료이고 병원에 오래 머물러야 할 것 같다.

→ 표를 한 빈 공간에 주차를 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III. 대형건물내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에 불일이 있어왔다. 주차할 곳을 찾아보니 주차장이 만원이다. 마침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보였다.

→ 표를 한 빈 공간에 주차를 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IV. 대형백화점 앞 도로

이 백화점에서 여름 정기세일을 한다가에 옷을 사기 위하여 찾아왔다. 세일 첫날이어서 많은 차량들이 몰릴 것 같고 지하주차장 주차시 나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 표를 한 빈 공간에 주차를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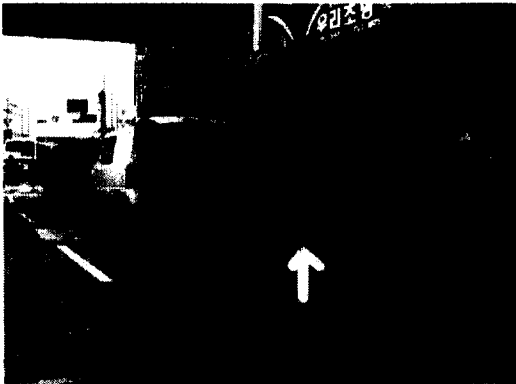
예 ()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V. 전자상가 도로변

바로 앞에 보이는 조명 상가에 조명기구를 사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주차장은 멀고 게다가 유료이다.

→ 표를 한 빈 공간에 주차를 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VI. 대형 음식점 앞

대형음식점에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하여 왔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을 찾은 관계로 주차장은 만원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식당 바로 앞 도로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신은 이 빈 공간에 주차를 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이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I. 우리 나라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속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첫째 (), 둘째 (), 셋째 ()

- ① 조금이라도 덜 걷기 위해서
- ②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어서
- ③ 급한 용무 때문에
- ④ 남들도 다 주차하기 때문에
- 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차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 ⑥ 위반을 해도 적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II.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주차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주차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동기 혹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III.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딱지를 떼었다면, 이것은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불법 주차한 내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VI.

A. 본인의 주차법규 준수수준은? ()

- ① 매우 잘 지킨다
- ② 가급적 지키려고 한다
- ③ 가끔 위반한다
- ④ 자주 위반한다

B. 다른 사람들의 주차법규 준수수준은? ()

- ① 매우 잘 지킨다
- ② 가급적 지키려고 한다
- ③ 가끔 위반한다
- ④ 자주 위반한다

V. 주차위반 차량을 볼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듭니까?

()

VI. 주차위반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VII.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경험이 있으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이 때 본인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

주차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소에 느끼거나 생각하신 바를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 요령은 다음 숫자 중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하나를 V하시면 됩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주차구획선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주차를 할 수도 있다① ② ③ ④
2. 주택가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적당한 곳에 주차할 수 있다① ② ③ ④
3. 이면도로에서 주차금지 표지가 없으면 주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공원이나 행사장에 방문자가 많을 경우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위반은 눈감아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손님이 많을 경우 쇼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주차해도 무방하고 본다① ② ③ ④
6.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괜찮다① ② ③ ④
7. 바쁜 와중에 혼자만 주정차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한다① ② ③ ④
8. 대형음식점 앞은 주차 구역이 아니어도 음식점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9.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10.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혼잡할 때 비워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많은 사람들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규정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12.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정차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13. 비록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 해도 집 앞 공터를 두고서
멀리 주차구역에다 차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① ② ③ ④
- 14. 남들이 주차위반을 다반사로 하는 장소에서 나 혼자
주차규정을 지키는 것은 바보짓이다① ② ③ ④
- 15. 남에게 혹은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를 해도 무방하다.....① ② ③ ④
- 16.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① ② ③ ④
- 17. 도로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서 먼 곳에 있는 주차장에다
차를 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① ② ③ ④
- 18. 사람들이 주차규정을 지키는 것은 준법정신보다는 벌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① ② ③ ④
- 19.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주차위반을 해도 상관이 없다.....① ② ③ ④
- 20.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 금지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① ② ③ ④
- 21. 우리 나라 도시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① ② ③ ④
- 22. 도심 주차요금이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강력한 주차위반
단속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① ② ③ ④
- 23. 공원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주차장이 만원이라면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주차단속은 완화되어야 한다① ② ③ ④
- 24. 주차공간 부족과 정책부재 때문에 위반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① ② ③ ④
- 25. 차량이 많이 몰려 주차장이 만원이라면 도로변 주차는
단속반원도 눈감아 주어야 한다① ② ③ ④
- 26. 지금 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위반은
불가피하므로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① ② ③ ④
- 27. 불법주차 문제는 범칙금 인상이나 단속강화보다는
운전자의 의식에 맡겨야 한다① ② ③ ④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8. 주차위반자를 보면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29.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칙금 인상과 강력한
 단속을 펴는 길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30. 누가 불법주차를 하려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1. 주차 위반자를 보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p>* 연령: 만 ()세 * 성별 남() 여()</p> <p>* 결혼여부: 미혼() 기혼()</p> <p>* 운전경력: _____ 년 _____ 개월</p> <p>* 학력: _____</p> <p>* 지난 6개월간 주차위반 딱지를 떼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몇 번입니까? () 번</p> <p>*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평상시 주차위반 정도는?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③ 가끔 하는 편이다() ④ 자주 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자주 하는 편이다()</p> <p>*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p>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